

‘불교평론’ 제6차 열린 논단

찾아라 ‘내 안의 하나님’ 과 ‘나의 참된 나’



오강남 교수

<도마복음> 발견 원자폭탄 위력에 맞먹어
 1945년 이집트 낙 하마디(Nag Hammadi) 지방에서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항아리를 발견한다. 이 항아리 안에는 열세 통의 파피루스 책이 나왔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책의 용도를 몰라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일부 남은 문서가 떠돌다 학자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불쏘시개로 쓰였던 책이 금보다 수천 배는 귀한 가치를 지닌 복음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복음서가 바로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가 예수의 어록을 기록한 <도마복음(The Gospel of Thomas)>으로 1세기경에 필사된 복음서다. 옥스퍼드대의 한 학자는 이 사건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맞 먹는다”라고 말했다. 개신교의 일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도마복음>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마복음>은 고대이집트어인 콥트어로 쓰였다. <요한복음>과 같은 시기에 필사됐고 내용도 50%정도 비슷한데, 깨달음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이는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등 기존 <공관(共觀)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기적·예언의 성취·재림·종말·최후 심판·대속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자기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gnosis)’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동양의 노장사상, 불교철학, 양명학과 유사한 논리다. 이처럼 <도마복음>은 예수의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는 표현 대신 “깨우쳐라, 깨달으라”로 일관하고 있다.

른 존재’로 여기지 않고 ‘신은 내안에 있다. 신은 곧 나다’와 같이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평가를 받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의미 파악해야
 기본적으로 종교는 △문자주의 △심리주의 △영적인 것 △신비주의의 네 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한다. 문자주의와 심리주의는 현교적이며 영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밀교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간에 현교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가르침을 뜻하고, 밀교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마복음서> 제35절

<도마복음>의 전체적인 기본 정신을 내면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값진 것을 되찾아 올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힘센 자를 결박해야 한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힘센 자란 결국 우리를 손아귀에 넣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ego)와 거기에 따르는 욕심, 정욕, 무지, 자기중심주의 등일 것이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 자아(ego)’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나 유교의 무사(無私)라는 것도 이런 이기적 자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마태복음>”라고 했다. 나의 작은 목숨, 작은 자아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 큰 자아와 하나가 돼 그것을 찾게 된다. 내 안의 의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쫓아냄, <장자>에서 말하는 ‘오상야(吾喪我:내가 나를 여림)’ 하는 체험과도 그 뜻이 같다.

불성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신적 요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통나무를 쪼개십시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돌을 드십시오. 거기서 나를 볼 것입니다.’”
 -<도마복음서> 제77절

‘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무엇일까. <도마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요8:58)’ 있었던 ‘우주적 나(Cosmic

나’ 곧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한 신성, 하나님, 참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하늘 위와 아래에 나밖에 존귀한 것이 없다(天下唯我獨尊)”와도 뜻을 같이 한다. 이때의 나(我)도 한 개인으로서의 아기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속에 있는 ‘초개인적인 자아’ ‘참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이런 신적 요소를 ‘불성(佛性)’이라 부른다.

천도교 2대 교주 최시형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제사임을 강조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개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즉, ‘한울님을 모신 내가 곧 한울님이니,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제사’라는 뜻이다.

내 안의 ‘하느님’은 참된 ‘나’
 한 미국인 스님은 “내가 <도마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태여 불자가 왜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스즈키 순류 선사 밑에서 선 수행을 한 리처드 베이커 주지 스님(샌프란시스코 선원)이다. 또한 20세기 가톨릭 최고의 신학자 칼 라너도 “21세기 그리스도교는 신비주의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

강사 : 오강남 명예교수 (캐나다 리자이나)
일시 : 2009년 5월 8일
주제 : <도마복음>과 동양 철학
장소 :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
주최 : 계간 <불교평론>

고 했다. 이처럼 종교적 신비주의의 민주화 즉, 신비주의의 대중화·일상화·생활화가 요구돼야 만이 모두가 깨칠 수 있다. 원래부터 개신교에는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있었고 이는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는 현교적인 개신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종교든 간에 문자 그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라는 것이 점차 의미 없는 단계로 들어가므로 “나를 믿고 따르라,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는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참 의미를 새겨야 <도마복음>이 강조한 대로 ‘내 안의 하나님, 나의 참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교의식이 한 단계 상승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멋쟁이, 능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자각이 성경에서 말한 자유와 사랑을 줄 것이라 믿는다.

정리=이나라 기자 bohyung@buddhapia.com

종교적 신비주의의 대중화·일상화·생활화 돼야 모두 깨쳐 ‘도마복음’의 ‘힘센 자를 결박하라’ 불교 무아사상과 비슷



세계적인 비교종교학자의 강연인 만큼 이날 포럼에는 저명한 신학·목회자들과 불교계 지식인들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불자 정보
 732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 (급) 안내
 ● 위치: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묘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후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 좋음
 ● 가액: 2억
011-9402-9306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입야 1928평 중 600평 허가됨. 토목공사완료
 ● 가액: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북 청주 병영초등학교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 탱화, 영단 갖추어져 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스님 건강 관제로 급양도 즉시법회가능, 여학 보살님도 가능
043)266-7451

포교당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찰터(급)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와룡산 자락
 ● 면적 300평, 입야 200평
 ● 임시주거지 70평(콘테이너)
 ● 계곡물이 좋고 산세 수려한 곳 바다가보이고 저수지 옆
 ● 가액: 평당 10만원
055)855-5950
018-622-9865

사찰 안내
 자리중에 자리· 최고의 위치
 ● 평수: 약 20평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방1, 법당1
 ● 시설비: 1,000만원 (절대로 후회없는 장소)
010-3725-2137

사찰 안내
 ● 위치: 대전 은행동 부근 갈러리아백화점 부근 정동원약국 옆 건물 2층
 ● 2층 50평 법당, 방2개, 주방 별도
 ● 삼존불신중, 후불, 약사여래 탱화, 시설 일체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2만원 시설비 일체: 2,000만원
011-862-8275
010-7100-0863

‘대출’ 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